

광주·전남 신협 이사장 선거 '잡음'

올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제2금융권인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대거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잡음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같은 제2금융권인 농·수·축협, 산림조합이 선관위에 위탁해 동시 선거를 치르는 것과 달리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체 선거를 치르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광주와 전남지역에는 신협 90곳과 새마을금고 98곳이 운영중이다.

올해 2월께 이사장 선거를 치르는 신협은 광주·전남 46곳이며, 새마을금고는 광주, 전남 각각 1곳이다.

조합원 자격 무더기 박탈·소송전 비화

"법 개정 통해 선관위 선거 위탁해야"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은 법 개정으로 지난 2015년부터 선관위에 위탁해 전국 동시선거를 치르고 있는 반면 신협은 자체 선거를 하고 있고 새마을금고는 선관위 위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아직까지 별다른 잡음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올해 46곳이 선거를 치르는 신협은 조합원 자격 박탈과 소송전이 불거지고 있다.

광주 남구의 A신협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조합원 850여 명 중 조합 공동유대(갑리고 교육 또는 남구

주민)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1063명의 자격을 상실시켰다.

또 광주 서구의 B신협도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조합원 8000여 명 중 최근 3년 동안 적금과 대출 등 기간이 있는 거래가 없는 조합원 3500여 명의 자격을 박탈했다.

조합원 자격을 잃은 이들은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신협 측이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대거 박탈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B신협 한 조합원은 최근 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하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신협 이사장 선거가 과열양상을 빚고 있는 것은 이사장이 갖는 권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신협 이사장의 연봉은 최소 3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4년 동안 금고 여수신 전반기 업무를 관장하는 데다 직원 채용 등 인사 권한을 누리고 명예까지 얻을 수 있다.

광주 모 신협 관계자는 "이사장의 권한이 막강한 데다 선거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선거 때마다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신협도 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규 기자

영암서 11t 트럭·승합차 충돌 10명 부상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교회 신자들을 태운 승합차가 대형 트럭과 부딪쳐 10명이 다쳤다.

25일 오전 11시33분께 영암군 금정면 연보리의 여운제터널 인근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조모(25)씨가 운전한 스타렉스 승합차가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하던 11t 트럭과 부딪쳤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10명 중 서모(20)씨 등 3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7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승합차에 탄 10명은 교회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아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12명 탄 여객선, 양식장 어망 걸려 표류

신안 해상에서 승객 등 12명을 태우고 운항하던 여객선이 양식장 어망에 걸려 표류하다 긴급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25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오후 4시37분께 신안군 장산도 북쪽 0.9km 해상에서 120t급 여객선 A호 승객 9명, 승무원 3명)가 양식장 어망에 걸려 항해를 할 수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호는 목포에서 안좌도, 하의도, 상태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으로 이날 오후 4시께 상태도에서 승객 9명을 태우고 목포로 회항하다 기상 악화로 양식장으로 밀리면서 어망에 걸렸다.

목포해경은 경비정 2척을 현장으로 이동시키고, 여객선 승선원 전원에 게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조치하고 이송 준비를 당부했다.

당시 현장에는 어망이 산재해 있었으며, 눈까지 내려 경비정이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현장에 도착한 경비정은 여객선 뒷부분으로 접근해 신고접수 1시간 여 만에 승객 9명을 경비정으로 옮겨 태웠으며, 오후 6시55분께 승객들을 목포연안여객선 터미널로 안전하게 이송 완료했다.

여객선은 해경 경비정의 안전관리 속에 25일 오전 민간 잠수사를 동원해 어망을 제거한 뒤 목포로 이동했다.

음주운전 30대, 신호 대기 중 잠들었다 덤피

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민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민씨는 이날 오전 1시께 광주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동구 서석동 동구청 앞 교차로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민씨는 교차로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으며 순찰 중인 경찰이 이를 발견해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민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민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친구둔기로 살해하고 시신 유기 50대 부부

친구를 둔기로 때리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24일 친구를 둔기로 때리고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남편 A(57)씨와 부인 B(55)씨를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사체유기)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평소 애고지낸 C(57)씨를 만나 미리 준비한 둔기로 C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숨진 C씨의 치타를 시신을 실고 인근 공사장에 암매장하고 차량을 불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씨는 부인 B씨를 불러 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범행 현장에 도착 후 차에서 내리지 않아 남편의 범행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은 부인이 시신유기에 어느정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은 C씨와 언쟁을 벌이다 화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뉴스

순천경찰, 전남테크노

파크 원장 등 4명 송치

태양광사업자 선정 특혜 혐의

순천경찰서는 25일 태양광 발전 임대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입찰방해죄)로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A(64)씨·단장 B(52)씨, 업체 대표 C(61)씨와 중개인 D(66)씨 등 4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3일부터 11월 일 사이 '전남테크노파크 태양광 발전 임대사업'의 공고문 내용을 미리 공유한 뒤 C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업 시행 전 골프를 하며 친분을 쌓았으며, 중개인 D씨의 청탁을 받고 입찰 공고문을 C씨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B씨가 입찰 자격 요건을 C씨가 작성한 대로 공고하고 입찰참여 업체 평가 위원을 D씨로부터 추천받아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특혜로 입찰 공고와 달리 태양광 시설의 발전 용량(2.09MW급-4.092MW급)과 시설(5곳-10곳)을 늘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단장 B씨에게 2차례에 걸쳐 돈을 주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발주처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입찰 방해 사례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오리베는 달리고 싶다 한파가 며칠째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을 '공공' 열어불게 만든 25일 오후 서울 잠실선착장 주변 한강이 얼어 있다.

광주·전남 맹추위·건조한 날씨 속 화재 잇따라

맹추위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에 화재가 잇따라 시·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광주시·전남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7분께 광주 북구 각화동 농산물직판장 채소 2경매장 가판에서 불이 나 119에 의해 22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좌판 3개와 주변 건물 33㎡가 타 소방서 추산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소화기로 진압 도중 갑자기 불길이 번졌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11시34분께에는

광주 동구 소재동의 한 식당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 30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보일러실과 주방 40㎡ 가량이 타 소방서 추산 5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화목보일러 잔불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6시15분께에는 전남 여수시 울촌면 A(63)씨의 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97㎡ 중 67㎡ 가량을 태우고 3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25분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구들장 전도열이 이 불에 전해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화인을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후 5시52분께 전남 고흥군 도양읍 모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추위 방지를 땀감의 불씨가 먼지방지 가림막으로 옮겨붙어 불이 나 8분만에 진화됐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강추위에 건조한 날씨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와 한파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